

尹 "기득권 타파·구조개혁 동참" 호소

尹부부,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 개최... "폐단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민간·시장중심 기조 유지...정부 총총하게 댕댕침"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요인 등을 초청해 '2023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타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날도 기득권 타파를 통한 '구조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지면 우리의 지속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위기는 도전의지와 혁신역량을 통해 번영과 도약을 이끄는 기회였음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구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고 힘줘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간주도 시장 중심 기조와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 체계의 약화, 기술 패권 경쟁의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또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기조

를 유지하면서도 외교·통상·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뒷받침이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면서 "특히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우리 헌법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해 여러 위기와 도전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번영을 이끈 자유와 연대, 인권과 법치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합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당 인사, 군 지휘관, 종교계 인사들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초청됐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으로 불참했다. /뉴스

전북도, 의사상자 희생 예우

도내 의사상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 의사자 유족수당 10만원·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전북도가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내 의사상자(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상자 직무 외의 행위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도내 의사상자에 대한 희생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

도내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상자로 인정 통보를 받은 38명(의사자 28, 의상자 8)으로, 도내 주수를 두고 거

주하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대상이다.

수당 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차순위 유족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단, 차순위 유족이 도내 미거주 시 지급 불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이 관할 주소지 시·군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신규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타 시도 전출 시 전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 지급액은 매월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는 부상범위 및 등급(1-9급)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재훈 기자

민주·정의, 한목소리 비판... "선택적 소통·막무가내식 윤치주의"

尹 신년사 등에 "국민 질문 피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전달"·"부끄러운 행태 감추기 위한 선택적 발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선택적 소통", "오관과 불통"이 여전히 막무가내식 윤치주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억도 부족해 선택적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 없는 신년사로 기자회견을 대신하더니 특정 언론사와만 대문짝만한 신년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질문은 피하고 국민께 말하고 싶은 것만 전달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선택적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통행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울러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는 특혜를 주고,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사는 보복해 왔다"며 "자신의 욕설을 보도한 언론을 세무조사로 검박하고, 대통령의 '소통쇼'를 들춰낸 언론에는 법적 조치 운운하며 민간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택적 정의, 선택적 기억의 부끄러운 행태를 감추기 위해 선택적 인터뷰를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국민은 대

통령을 선택할 수 있어도, 대통령은 국민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빠져있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라는 민주주의의 운영원리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관과 불통이 여전히 막무가내식 윤치주의 선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정부의 실정부부터 짚어 봐야 했다. 수출중심의 경제성장상을 이야기했지만, 미래비전

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교육, 연구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노력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정운영의 심각한 오류"라고도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오관과 불통을 바로잡는 것이 위기 극복과 개혁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신년사"라며 "다른 것이 아닌 윤석열 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도, 2023년 산사태 막는 사방사업에 332억원 투입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산림청이 주관한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전국 25개소 중 전국 최다인 5개소가 선정돼 확보한 2023년도 사방사업 예산 332억원을 본격 투입한다.

올해 사방사업 예산이 전국적으로 67억원(2.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 306억원보다 28억원이 증

가한 332억원을 투입해 산사태취약지역 위험성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활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권 중심의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법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허태영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방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에 주력하면서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품질향상을 위해 타당성 평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우기철 이전

사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보강 등을 진행했다. 이 같은 선제적 대응으로 지난해 사방사업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더불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2022년 상반기 사방사업 적극집행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올렸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서울·전주장학숙 입사생 모집

서울120·전주120명 모집·내달 1일까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전북도 서울·전주장학숙이 2023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240명(서울장학숙 120명, 전주장학숙 120명)으로 3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 받아 2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장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이며, 전주장학숙은 전라북도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

로, 전라북도에 1년 이상 계속해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신입생은 2023년 대학 수험능력시험 또는 고교성적의 백분위 평균이 서울장학숙은 80점 이상, 전주장학숙은 60점 이상, 예체는 계열은 50점 이상, 재학생은 전체학년 총평점평균이 B학점(전주 C+ 학점) 이상이며 성적 50%, 생활정도 5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김재훈 기자

모집	우석대학교·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방학특강(1~2월)과정 모집	환영
스피치·긴장해소·시낭송·웃음코칭·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통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평생교육원에서 좋은 인맥으로 즐겁게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겸임위원장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시낭송지도사 등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p>* 강사 : 김정리(웃음코칭지도사, 레크리지도사, 스피치지도사)의 전문강사</p> <p>◎ 과 목 명 : 스피치기법과 리더쉽(원광대), 웃음코칭(우석대)</p> <p>◎ 모집대상 : 대학생, 일반인 남, 녀 누구나(남,녀,노,소)</p> <p>◎ 모집방법 : 선착순 각 25명 · 매주1회 야간수업</p> <p>◎ 등록방법 : ① 전화접수 ② 방문접수 ③ 팩스접수</p> <p>◎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우석:252-9601, 원광:850-5512)</p>		
<p>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익산)</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